

## 중국 지방정부 정책 및 교류 동향

### ▶ 정책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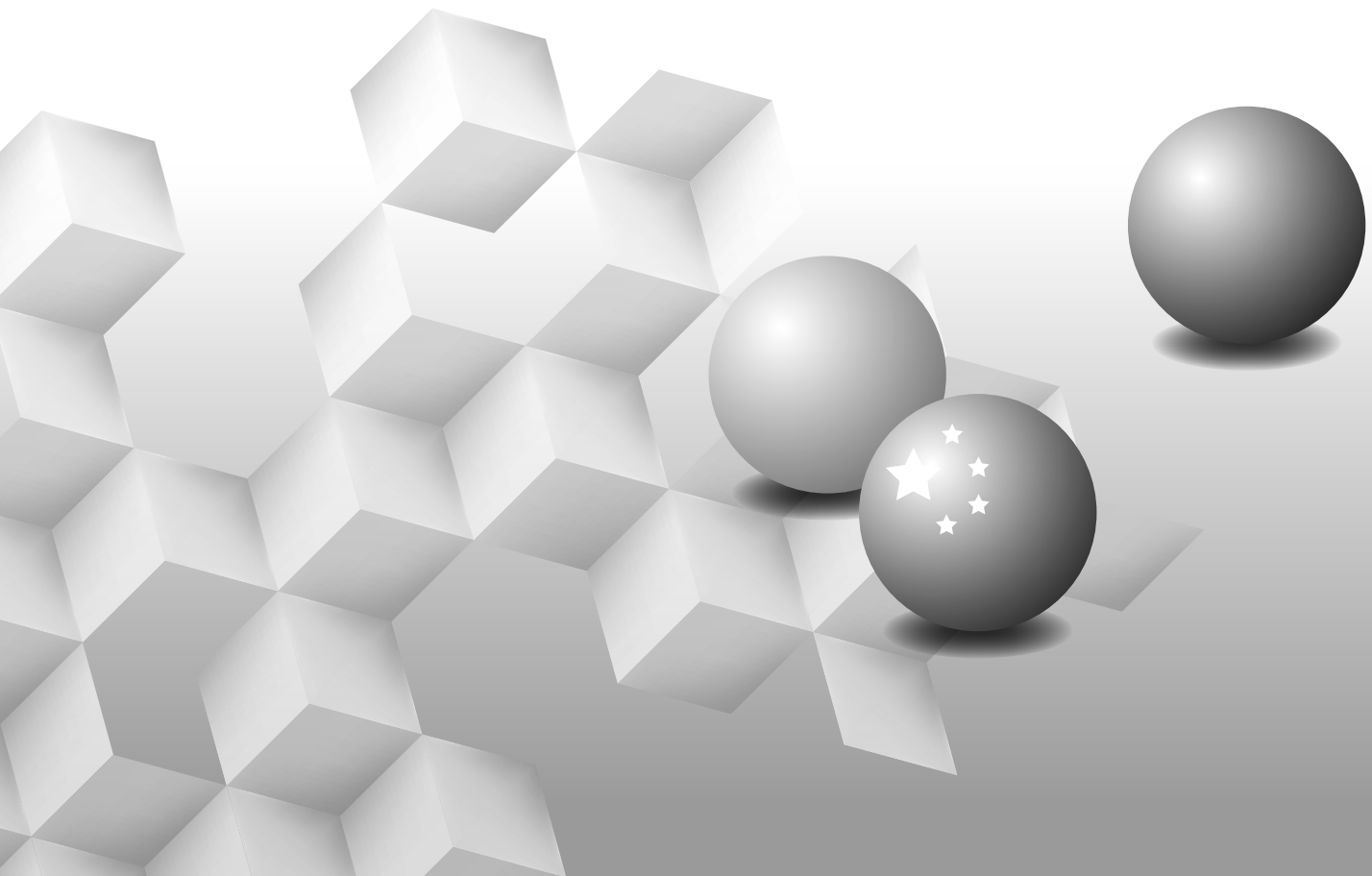
『랴오닝,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』 발표  
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개관

### ▶ 국제교류동향

선양시,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  
지린성, 당일치기 북한 해산물관광이 중국 먹방족을 움직인다

전춘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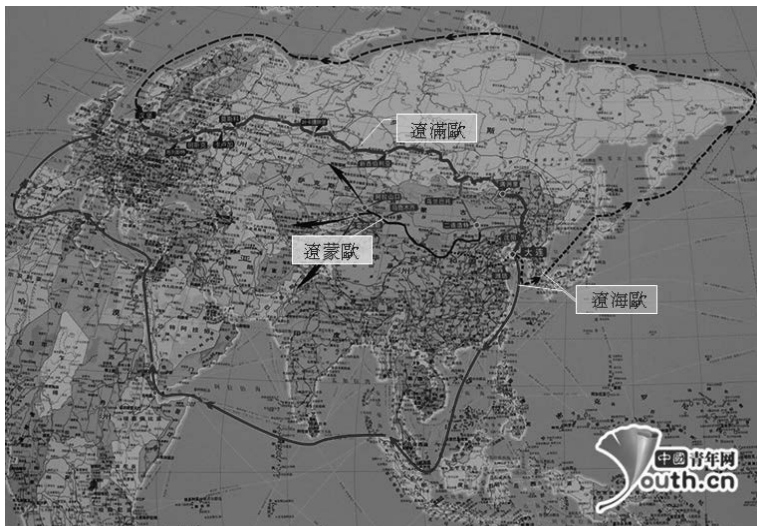
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



## 『랴오닝,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』 발표

2018년 8월 27일, 랴오닝성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『랴오닝,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 (이하 방안)』을 발표하였다.

이 『방안』을 통해 중국, 러시아, 일본, 한국, 북한, 몽골과의 협작을 이끌어내고 동북아지역의 협작 국면을 조성해 동북아 경제화랑을 조성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하였다.



## 『랴오닝, 일대일로 노선』

랴오만어우(遼滿歐)

랴오닝, 만저우리, 유럽연결

랴오하이어우(遼海歐)

다롄항부터 북유럽 연결하는 항로

신규개통

랴오멍어우(遼蒙歐)

단둥/진저우항에서 출발해 몽골을 거쳐

유럽 각지로 통하는 철도

<그림1> 랴오닝 일대일로 노선도

자료 : 중국청년망(中國青年網)

## 시대를 여는 새로운 한 페이지 - 『랴오닝, 일대일로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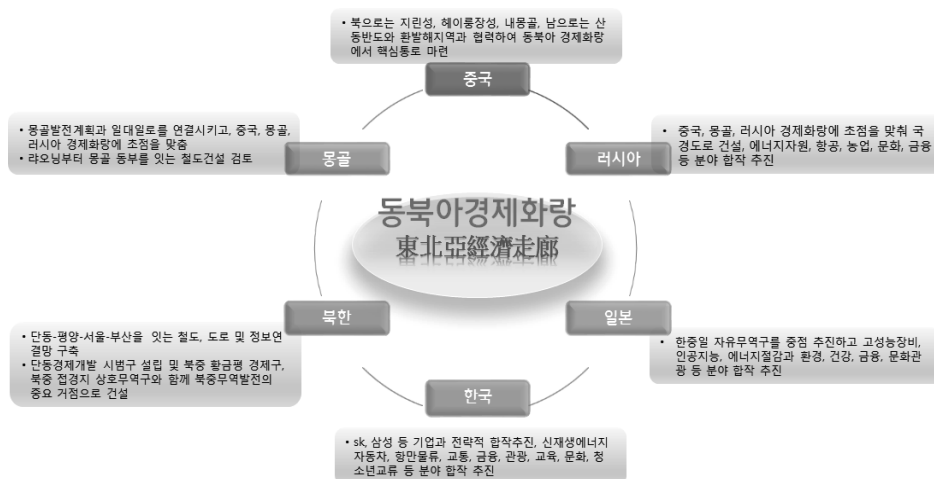
- 랴오닝성은 중국동북지역에서 항구를 보유한 유일한 성이며, 자유무역 시범구 등 유리한 조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.
-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해온 지난 5년간, 랴오닝성은 노후 공업지구 전환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고, 『랴오닝, 일대일로』 정책 추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.

<표1> 랴오닝성 국제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현황

사업성과	세부현황
국제적인 정책소통과 네트워크 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내에 미국, 일본, 한국, 북한, 러시아, 프랑스, 독일 등 7개국 영사관 설립</li> <li>● 27개국과 17개 우호성(주), 69개 우호도시 관계 수립</li> </ul>
인프라 연결 및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인접 국가들과의 『육해공망빙(陸海空網冰)』통로를 전면적으로 연결</li> <li>● 랴오만어우철도(遼滿歐: 랴오닝, 만주리, 유럽 연결 철도) 1,143회 운행</li> <li>● 랴오하이어우항로(遼海歐: 다롄항부터 북유럽 연결 항로) 신규 개통</li> <li>● 선양, 다롄 등 8개 공항에서 총 63개 국제노선 취항</li> </ul>
대외경제교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루마니아, 우간다, 인도 등 국가와 산업단지사업 추진</li> <li>● BMW자동차 투자사업, 원자력발전소 건설, 중독(독일)장비산업단지 추진</li> <li>● 랴오닝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과 해외지구 등 신유동 업종 강화</li> </ul>
자금유통 원활하게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중국수출신용공사, 국가개발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자금활용의 녹색통로 마련</li> </ul>
민심상통 실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성내 30여개 대학 2.3만명의 유학생을 활용해 국가간 교육 교류 실시</li> <li>● 세계 여러 국가와 의료건강분야·여행분야 합작기회 마련</li> </ul>

## 적극적인 정책소통을 토대로 전면개방을 위한 새로운 국면 맞이

- 동북아지역의 화해국면을 기회로, 랴오닝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중국, 몽골, 러시아의 경제화랑과 융합하고, 또한 『중, 일, 한 +X』모형(역사로 얽힌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도모)따라 북한 문제를 해결하며, 궁극적으로 러시아, 일본, 한국, 북한, 몽골과 함께 동북아경제 화랑을 추진하고자 한다.



<그림2> 동북아경제화랑 추진내용

- 동북아 경제화랑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SK, 삼성 등 기업과의 전략적 합작을 추진하고, 신재생에너지 자동차, 항만물류, 교통, 금융, 관광, 교육, 문화, 청소년교류 등 분야를 합작하고자 한다.
- 북한에 대해서는 단동-평양-서울-부산을 잇는 철도, 도로 및 정보연결망 구축계획을 담았고, 적절한 시점에 단동특구를 건설하고, 황금평 경제구와 국경지역 상호무역구를 북중 무역합작의 중요한 거점으로 건설하고자 한다.

## 『육해공망빙(陸海空網冰)』통로 구축 및 상호 연결

- 2017년 기준 라오닝항구 전체 물동량이 11억톤에 달했고 다렌부터 북극동북을 잇는 라오하이어우(遼海歐)항로를 개통했으며 라오만어우열차는 총 1,143차례 운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. 선양, 다렌 등 8개 공항에서는 모두 63개의 국제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, 라오닝성 전반적으로 빅데이터와 최신 통신매체가 보급되었다.

<표2> 『육해공망빙(陸海空網冰)』통로

통로구분	추진내용
유럽-아시아육상실�크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라오만어우철도(遼滿歐) : 기존 철도의 효율성 증점 제고</li> <li>● 라오신어우철도(遼新歐) :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철도 개척</li> <li>● 라오훈어철도(遼琿俄) : 단동항에서 출발해 훈춘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신 노선 설계</li> <li>● 중국과 러시아 도로교통운송 TIR(다렌-노보시비르스크) 구축</li> <li>● 단동과 북한 신의주, 평양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</li> <li>● 잉커우항을 육로와 항로의 물류집산지로 건설</li> </ul>
중국-유럽열차 시장성 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라오닝 중어우열차(中歐班列) 집결중심 건설</li> <li>● 중어우열차(中歐班列)와 국경간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촉진</li> <li>● 르라오어우(日遼歐), 한료우어우(韓遼歐)를 위한 컨테이너 해상운송과 철도운송 연합 신모델 개척</li> </ul>
해상실�크로드 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태평양지역 국가급 경제개발구와 다렌자유무역항 건설 추진</li> <li>● 다렌동북아국제항운중심과 황해발해만 세계급 항구 집산지 건설</li> <li>● 라오하이오우(遼海歐: 다렌-남중국해-유럽)노선을 동쪽 및 남쪽으로 확장해 일본, 한국, 북한 및 동남아 항구와 해상통로 개척</li> </ul>
공중실�크로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선양, 다렌 공항 144시간 입국비자 면제 등 추진</li> <li>● 선양, 다렌 공항과 일본, 한국, 러시아 등 동북아국가의 항공노선 추가 및 신설</li> <li>● 선양, 다렌, 단동으로 부터 북한, 러시아지역과의 항공취항 수준 강화</li> <li>● 선양-프랑크푸르트 노선 안정화, 적절한 시기에 북미노선 취항</li> </ul>
빙상실�크로드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다렌, 잉커우부터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라오하이오우항로의 안정적 운영으로 북극동북 신해양 운송통로 마련</li> <li>● 라오닝항구와 가스기업의 합작모형 추진</li> <li>● 북극동북으로 가는 연안지역 항구 건설, 가스산업단지 건설 적극 동참</li> </ul>
데이터(망) 실�크로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선양국가빅데이터 종합 시범구 건설</li> <li>● 일대일로 빅데이터분석중심 다렌분점 건설 추진</li> <li>● 다렌동북아국제항운 빅데이터중심, 동북아 빅데이터 지적재산권거래소 설립 검토</li> </ul>

##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 개관



<그림 1>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전경 및 홈페이지

자료 :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홈페이지

2018년 9월 29일 오전,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(이하 ‘항일의용군 기념관’) 광장에서 개관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. 이날 행사는 선양시위원회와 선양시정부가 주최하고, 환인현(桓仁县)위원회와 현정부가 주관하였다.

##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승인한 항일의용군기념관

● 랴오닝지역의 풍부한 근대역사가 항일의용군기념관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.

- 국가(國歌)인 의용군행진곡이 항일의용군에서 유래된 만큼 랴오닝 항일전쟁이 갖는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다.
- 랴오닝은 항일의용군의 기원지이며 항일활동의 중심지역이다. 랴오닝에는 항일의용군의 유적, 유물 등 역사적 근거가 아주 많다. 진저우(錦州), 차오양(朝陽), 푸순(撫順), 테링(鐵嶺) 등은 당시 항일의용군의 중요한 활동지역이었으며, 모두 국가의 탄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. 이러한 배경은 동북항일의용군기념관을 랴오닝에 건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.

## 랴오닝항일의용군기념관 개요

- 항일의용군기념관은 선양시 환인만족자치현 환인진(桓仁滿族自治縣桓仁鎮) 북산공원 내에 위치하는데 전체 건축면적은 2,990m<sup>2</sup> 이고 전시동 면적은 2,500m<sup>2</sup> 이다.
- 항일의용군기념관은 주제전시실(主題展廳), 국가전시실(國歌廳), 영웅열사제사실(英烈祭祀廳), 다목적실(多功能廳) 4개실로 분류된다.
- 그 중 메인인 주제전시실은 동북항일의용군 초기 항일전쟁 기록, 동북항일의용군 용감한 투쟁기록, 동북항일의용군 끈질긴 항일전쟁 기록, 동북항일의용군과 『의용군행진곡』, 역사 속에 이름을 길이 빛낸 민족영웅들 등 항일전쟁기념 관련 기록물에 대해 전시하였다.
- 전시물들은 그림·사진전시, 멀티미디어 연출, 역사장면 연출, 대형조각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지난 14년 동안 동북지역인민의 항일전쟁 역사를 표현하였다.



<그림 2>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내부 모습

자료 :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관 홈페이지

## 2011년,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광장 조성

- 지난 2011년, 1931년 9·18사변(일명 만주사변) 80주년에 맞춰 항일 무장 투쟁에 나섰던 동북 의용군을 기리고자 선양시 동릉(東陵)구에 랴오닝동북항일의용군 광장을 조성했다. 이 기념광장에는 동북의용군의 활약 일지와 '의용군행진곡', 동북의용군대장 108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. 이 때 동북의용군을 기리는 광장이 조성된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었다. 선양시는 이 광장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.



<그림 3> 동북항일의용군 기념광장 전경과 의용군행진곡 기념비

자료 : 선양일보(沈陽日報)

##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

### ① 랴오닝성 동향 (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: 2010.11.03)



#### 선양시,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

- 2018년 9월 25일 중일 에너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(이하 상담회)가 선양에서 개최되었다.

본 상담회는 200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『중일 에너지환경종합 포럼』<sup>1)</sup>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되며 올해 제3회를 맞았다. 이 상담회는 일본의 에너지환경분야 기술과 관련 분야 중국 기업들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한다.

- 랴오닝성은 중국 국가급 전통 중공업단지이고, 최근 지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늘어나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준 업그



<그림 1> 2018지환경기업 설비교류상담회 개최 현장

자료 : 선양일보(沈陽日報)

1) 『중일 에너지환경종합 포럼』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말에 제18회를 맞이하게 됨